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진 민 주

2016년 8월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정 환

진 민 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진민주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8월

감사의 글

장마철에 많이 내리는 비가 여름의 싱그러움을 더해줄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눅눅함과 불쾌지수로 힘들 때도 있지만, 장마철에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진한 치자꽃 향기가 있어서 힘든 나의마음을 녹여주곤 합니다. 석사의 꽃은 논문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꽃을 피우기 위해 수 많은 날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고민했던 날들과 몇 번의 주제를 바꿔가며 계획을 세웠다, 지웠다 하며, 연구대상을 찾아가며 분석하며 정리했던 그 길었던 시간이 지금은 찰나의 순간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은 투명한 벽에 부딪쳐 발버둥 치는 기분이었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느낌이 다가와 슬럼프에 빠질 때도 많았습니다. 완성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어둠의 그림자처럼 엄습해 올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썼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하며 하루하루 일상들이 지나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꽃을 피우는 순간이 오니 내 자신이 대견 하다가 보다는 나를 조력해주시고, 긍정적 메시지를 주시고, 차가운 이성으로 지도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 뿐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제자를 끝까지 지도해 주신 박정환 교수님, 논문을 쓰는 과정을 성찰하게 해 주신 김성봉 교수님, 세심하게 체크해주신 최보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연구주제부터 마치는 그 날까지 도와주신 사회복지학 임애덕 박사님 감사합니다. 논문고민을 함께해주고 많은 조언을 해준 후배 오윤정박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근엄한 고희승님, 군대에 간 멋진 대효, 대학에 다니는 예쁜 미지, 개성이 너무나도 강한 고등학생 착한 미정이, 삶의 에너지를 주는 초등학교 귀여운 비송이에게도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남편에게 변화하는 아내의 모습, 자녀들에게도 변화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원가족에게도 장녀로서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내 자신도 잘 모르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박사님, 원우님들, 그 외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설문을 도와준 센터선생님, 도서관선생님, 어린이집선생님, 시설에 계신 선생님 그리고 설문에 응해주신 전업주부님, 취업주부님, 미혼양육모님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고 분석하면서 나의 삶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육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행복하고 건강한 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문초록>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진 민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양성평등 개념이 확산되면서 과거에는 당연하게 어머니의 역할로서 받아들였던 자녀의 양육이 적지 않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정 내 갈등, 직장생활에서의 비효율성 초래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영유아기 아동학대 문제 역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어머니의 양육형태에 따라 아이 돌봄 인식에 대한 차이,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자녀양육 일반’, ‘부모 역할 부담’, ‘타인양육 죄책감’의 3개 영역 32개 문항을 양육스트레스 척도로 활용하여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 각 60명, 총 1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양육일반 스트레스, 부모역할부담 스트레스, 타인양육죄책감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라 아이 돌봄 인식에 있어 도움을 받는 대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남편의 양육 참여, 정서적지지, 남편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양육모의 경우 양육참여, 정서적지지, 남편과의 관계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보육시설 만족도의 경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양육모는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한 자기 만족도 평가 역시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종교에 따라 “타인양육 죄책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첫째 자녀 연령에 따라 “부모역할 부담”, “타인양육 죄책감”, “스트레스 전체”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지 만족도에 따라 “자녀양육 일반” 영역과 “부모역할 부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가정의 월평균수입에 따라 “타인양육 죄책감”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첫째, 영유아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즉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미혼양육모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경제적 안정화를 통해 자녀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실시 및 취업알선 등이 필요하다. 셋째,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문화 개선을 포함한 사회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개념 및 특징	7
2. 양육스트레스 유형과 원인	10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발달	21
4. 선행연구 분석	24
III. 연구방법	29
1. 연구대상	29
2. 연구도구	29
3. 연구절차	32
4. 자료분석	33
IV. 연구 결과 및 해석	35
1. 일반적 특성	35
2.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분석	40
3.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아이돌봄 관련 인식 분석	42
4.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분석	47

V. 논의 및 결론	52
참고문헌	55
설문지	64
Abstract	71

표 목 차

<표 II-1> 미혼모 출산 현황	14
<표 II-2> 미혼입양모와 미혼양육모의 학력 현황	15
<표 II-3>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의 양육스트레스 요인 비교	28
<표 III-1> 측정분야별 구성문항	30
<표 IV-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35
<표 IV-2> 가족 형태 및 자녀 특성	37
<표 IV-3> 거주지 및 거주지 만족도	40
<표 IV-4> 어머니의 양육형태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차이 검증	41
<표 IV-5> 어머니의 양육형태별 아이 돌봄 도움받는 주체	42
<표 IV-6> 남편의 자녀 양육 지원	43
<표 IV-7> 자녀의 건강상태 및 기질	45
<표 IV-8> 보육시설 만족도	46
<표 IV-9> 자기 평가	46
<표 IV-10>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분석 결과	47
<표 IV-11> 어머니의 종교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분석 결과	48
<표 IV-12> 첫째 자녀 연령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분석 결과	49
<표 IV-13> 거주지 만족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분석 결과	50
<표 IV-14> 가정 월수입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분석 결과	51

그 립 목 차

[그림 II-1] Abidin 양육스트레스 모델	9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그동안 많은 학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자신의 양육행동에는 물론이고 자녀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강희경, 조복희, 1999; Crnic & Greenberg, 1990)해 왔다. 여성의 취업이 보편화 되고 맞벌이 가정이 일반적인 가족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어머니가 양육을 전담하는 우리나라 문화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원인이 되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란 부모역할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체계가 직면하는 발달과정 속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Muslow, Caldera, & Reifman, 2002). Crnic(1990) 과 Greenberg(1990)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역할을 하고 상호 작용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으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양육스트레스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요인, 어머니 관련 요인, 가족 맥락적 변인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가족스트레스 연구회(1994)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양육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 세 가지는 자녀의 발달에 다른 특수한 행동,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 및 어머니 자신의 질병이나 정서적 문제, 남편 및 지지체계라고 하였다.

Abidin(1992)은 자녀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성 정도인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기질 및 성별, 연령과 같이 자녀가 가지는 특성과 어머니의 연령, 학력 등 어머니와 관련된 특성 및 상황관련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특히,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경험인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하였고(Belsky, 1984),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사소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자녀에게 더 짜증

을 내며, 이는 아동의 공격적인 반응을 증가 시킨다고 하였다(Patterson, 1983). 초보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긴장감이 높고(Koh, 1996)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연구(Mereer, 1985)와,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거부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키고(Dix, Reinhold & Zambarano, 1990; Field, 1995) 부정적인 기질을 형성하게(Schudlich, Shamir & Cumming, 2004)할 뿐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문제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Dietz, Jennings & Abrew, 2005).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자녀에 대한 태도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엄지원, 2011), 양육스트레스가 축적되면 비일관적인 부모의 훈육(Lempers, Clark-Lempers, & Simons, 1989), 강압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Wahler, 1980), 아동학대(Howze & Koteh, 1984)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정은 모든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사회 단위이며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 일차적 환경이다(장병옥, 1985). 이 가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부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인 문제를 갖게 되면 그것은 가족 전체 구성원에게 부정적 역할을 미친다.

기존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는 장애 아동관련 양육스트레스, 영유아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가 있으나,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 영유아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양육형태에 따른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로 나누어 영유아기 자녀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전업주부는 많은 시간 가정에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얻는 신체적·정신적 피로와 함께, 제한적인 활동범위와 사회활동으로 인한 정신적인 위축, 좌절감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유상미, 2014). 취업주부들은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과정에서 극심한 역할갈등과 양육스트레스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로, 근로자의 작업성과 직장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일로 여기며,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김지연, 2013). 미혼모가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에 대한 학대 및 방임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어 있으며, 높은 증상의 우울증은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최정균, 2016). 미혼모인 경우 출산 전 자녀에 대해 입양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정’을 내리는 독특한 경험을 하였기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머니 역할에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일반 어머니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머니 역할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내적 자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이성원, 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남편 등에까지 전이되어 가족 모두에게 과급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주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를 위해서도 주부의 스트레스는 빨리 해소 되어야하고, 대처방안을 잘 숙지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을 양부모가 있는 가정과 미혼양육모 가정을 중심으로 영유아기 자녀양육스트레스를 비교 분석하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요인과 개선방안을 탐색하여 궁극적으로 영유아기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라 맞벌이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도 여성의 사회 참여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여성의 양육스트레스의 원인과 대처방안 등을 탐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판단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확인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첫째, 어머니의 양육형태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아이돌봄 인식에 대한 차이 및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형태(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는 어떠한가?

- 1-1.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라 자녀양육 일반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2.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라 부모역할 부담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3.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라 타인양육 죄책감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4.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전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형태(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에 따라 아이돌봄 인식은 어떠한가?

- 2-1.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라 아이돌봄 인식은 도움 받는 주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2.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라 자녀의 건강상태 및 기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3.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라 배우자의 보육 참여 및 정서적지지, 배우자와의 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4.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라 보육시설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는 어떠한가?

- 3-1.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2. 어머니의 종교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2. 첫째 자녀 연령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3. 거주지 만족도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4. 가정월수입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1) 자녀 양육스트레스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개념을 정의하면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육체적, 정신적인 압박을 통해 표출하는 성가심, 짜증, 어려움으로 이러한 양상에 가족, 자녀, 사회 문화적, 경제적인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미혼모

미혼모(unmarried mother, unwed mother)란 미국의 ‘Encyclopedia of Social Worker’s(NASW,1995)에 따르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거나 분만한 여자를 말하며, 그 중에는 이미 혼인한 여자가 사별, 이혼, 별거 상태에서 법적 관계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와 처녀가 혼전 임신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에 따르면 “미혼모란 상대되는 남자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신하였거나 분만한 여성을 의미하는데 미혼, 별거, 사별 등의 상태를 모두 포함” 한다. 한인영(1998)은 혼전 임신으로 국한하여 “혼전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이면서 사실혼 상태에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혼전에 임신하였거나 출산한 미혼여성으로 사실혼 상태에 있지 않은 여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미혼양육모

우리나라에서는 미혼양육모에 대한 개념정의를 확립되어 있지 않다. 미혼양육모는 미혼과 양육모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미혼으로 아이를 임신하거나 낳아 기르는 어머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용어가 아

니며 1999년 미혼모 보호시설인 애란원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장상천, 2010)에 따르면 미혼양육모를 “미혼모들 중 아이의 장래 결정에서 입양 등이 아닌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로서 아이를 출산한 후 입양이나 시설입소를 결정하지 않고 스스로 양육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임신 중인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겠다는 결심을 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시설 또는 재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자로서 미혼여성이 혼전 임신을 한 후 출산하여 현재 영유아를 양육하는 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4) 배우자의 지지

배우자의 지지는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배우자를 통해 받는 지지의 정도를 의미한다(김기현, 강희경, 1997). 본 연구에서 배우자의 지지는 양육모들이 겪는 다양한 요인에서 인식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겪는 고립감과 소외감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정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개념 및 특징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스트레스의 주요인과 확인 가능한 지표로 우울을 이야기한다(Pearlin et al., 1981).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는 단발적인 사건보다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긴장이나 갈등, 실패감 등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상적 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Compas(1987)는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잠재적이고 위협적이며 도전적 상황들에 접하게 됨으로써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김기현과 강희경(1997)은 양육스트레스를 어머니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정신적 고통과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정의하였고, 안지영(2000)은 자녀와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이 반복되어 어머니에게 성가심이나 짜증, 어려움을 주는 정서로 정의하고 있다. Koh(1994)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자녀양육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체계가 직면하는 발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스트레스라고 하였고, Abidin(1990)은 양육스트레스 개념을 자녀의 양육행동 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child characteristics), 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해 느끼는 지각 정도(mother characteristics)와 일반적인 생활사건에서 오는 생활스트레스(situational demographic life stress)등 세 영역으로 보았다.

이정순(2002)은 양육스트레스를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로서, 일시적 혹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일상적 스트레스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현재 상황, 장래, 자녀 양육의 방법과 결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함축하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부모는 자녀양육의 특성상 많은 노력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자녀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경험하는 여러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이다. 그러나 기혼취업여성들은 자녀양육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기보다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노력하면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Koh, 1994). 이와 같이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의 표출 측면에서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학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우울은 양육스트레스, 언어적 학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Lee, 2007).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 어머니의 역할부담 가중, 그리고 육아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크고 작은 심리적 고통이 축적됨으로써 발생하는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이선아, 2014).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서 체계, 행동 체계, 생리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개인 자신에게 특유 반응을 야기하는 모든 것을 총칭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현정, 1996). Crinic(1991)과 Booth(1991)는 양육스트레스를 유아의 발달 및 행동과 관련된 어머니의 인식과 개인적 성격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변화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주옥(2008)은 양육스트레스를 가족생활의 발달맥락에서 예상되는 가족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써, 자녀를 양육할 때에 경험하는 곤란의 정도 또는 부담감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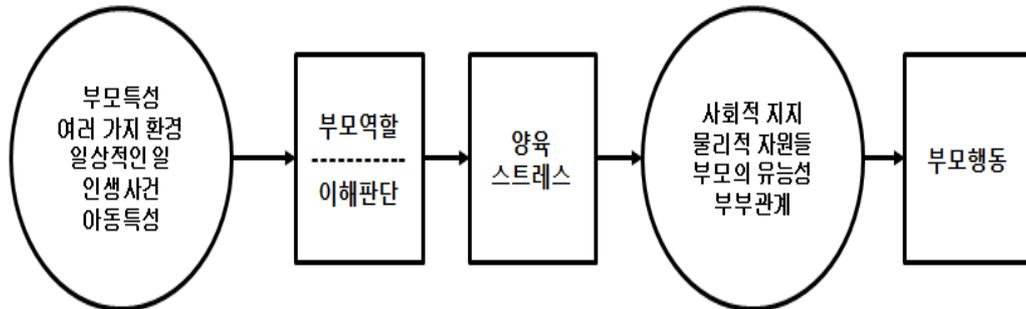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개념을 정의하면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육체적, 정신적인 압박을 통해 표출하는 성가심, 짜증, 어려움으로 이러한 양상에 가족, 자녀, 사회 문화적, 경제적인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들에게 분노, 좌절감, 불안감,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통, 불면증, 면역력 저하, 피로감, 섭식장애 등을 가져온다. 부모가 받는 양육스트레스의 부작용은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애착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면 자녀도 행복할 수가 없다(윤은혜, 2013).

고성혜(1994)는 자녀의 양육스트레스의 특징으로 자녀의 장래 및 올바른 양육에 대한 고민과 걱정에서 오는 불안감, 자녀양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과 부담감, 우울성향, 부모의 죄책감 및 역량감, 자녀양육에 따르는 신체적 피로도 및 구속감, 가족간 불화, 자녀로부터 받은 심리적 상처 등을 들고 있다.

Abidin(1992)의 양육스트레스 모델은 [그림 II-1]과 같이 부모특성, 여러 가지 환경, 일상적인 일, 인생사건, 아동특성과 같은 투입변인을 토대로 부모역할과 이해판단의 과정변인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구조이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 물리적 자원들, 부모의 유능성,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결과변인인 부모의 행동 역시 다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II-1] Abidin 양육스트레스 모델

Abidin(1992)의 모델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의 인성요소와 병리성, 아동의 여러 특수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과정으로 설명한다. 아동특성 및 부모특성, 생활스트레스 변인이 양육스트레스에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아동특성의 하위요인은 적응성, 요구성, 감정, 활동성, 수용성, 부모강화의 6가지이며 이중 4가지 적응성, 요구성, 감정, 활동성 등은 기질과 관련된 특성이다. 부모특성의 하위요인은 침체성, 유능성, 애착, 배우

자 관계, 고립, 건강, 억압 등 7가지이며 부모의 인성과 병리학적 요인은 침체성과 유능성, 애착 등 3가지 변인으로 설명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인을 연구한 Belsky(1984)는 Abidin(1992)의 모델에서 산출 변인인 부모의 양육행동 결정요인에 관한 과정모델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의 특성이나 아동의 특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맥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환경적 맥락도 중요한 투입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Simon, Beaman, Conger와 Chao(1993)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겪는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우울 성향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쳐 비효율적인 훈육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2. 양육스트레스 유형과 원인

1) 양육스트레스 유형

Featherstone(2002)은 양육스트레스를 아동의 특성, 부모의 특성과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기현과 강희경(1997)은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의 반복인 일상적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가 타인에게 양육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는 죄책감인 타인양육 죄책감의 두가지로 유형화하였으며 Abidin(1992)은 양육스트레스의 유형을 3가지로 유형화 하였는데 자녀관련, 부모관련, 생활스트레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자녀관련 유형에서는 자녀의 수, 기질, 성별, 연령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며(이인숙, 1994), 자녀의 수가 증가할수록 부모의 부담감이 높아지고 양육스트레스가 높다. 이는 자녀양육이 시간 및 활동의 제약과 심리적 부담감, 재정의 뒷받침 등의 여러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부모관련 유형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인지적으로 받아들이고 평가하는데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변인으로 평가받고 있다(Abidin, 1990). 부모의 양육지식 및 교육수준, 부모의 우울, 고립감, 외향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 상호작용 능력, 배우자와의 관계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함께 양육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

생활스트레스 유형은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겪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생활스트레스는 재정적인 여건, 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기반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모의 경제적인 소득수준은 양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정문자·이미리, 2000). 박성연, 전춘옥과 한세영(1996)은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양육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결과 아동의 행동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거부,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정서 자체보다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거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중요한 예측 변인인 것으로 밝혀냈다.

Abidin(1992)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부모 특성, 아동 특성,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라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임상경험과 문헌연구를 통해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를 개발하였다. 부모 양육스트레스 척도에 의하면 양육스트레스는 과정변인인 부모의 인성요소와 자녀의 특성요소, 부모와 자녀를 둘러싼 상황적 요인들에 의하여 자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2) 양육스트레스 원인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업주부 영유아 양육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연구결과, 김미례(2006)의 연구는 20~30대 전업주부들이 갖는 자녀양육스트레스의 요인은 가족관련 요인인 가사노동문제, 건강문제, 남편과의 관계, 자녀관련 요인인 자녀와의 관계, 경제적 요인인 주거환경문제, 경제적 수입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경(2011)의 연구 역시 영아 자녀를 둔 전업주부들은 양육비용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 육아정보 선택,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

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수민(2012)의 연구에서도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 어머니들은 경제적인 요인인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육아 정보선택,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책임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었고, 취업모에 비해서 전업주부가 더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근혜와 조성제(2015)의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순으로 유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도 양육스트레스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의 고통 순으로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김혜진(2005)의 연구에서는 맞벌이를 하는 어머니는 자기 일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만족감과 더불어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 경제적인 요인에서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덜 받는 반면에 전업주부의 어머니는 하루 일과 대부분을 아동과 보내며 계속되는 짜증과 자녀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어려움과 양육비의 부담이라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자녀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임순화(2009)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수준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소득수준, 직업유무, 학력), 자녀수와의 관계에 따른 차이를 볼 때, 소득수준이 높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반면에 소득이 낮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주부의 영유아 양육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연구결과, 통계청(2013)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1999년 이후 점진적인 경기회복으로 2004년 49.9%, 2005년 50.1%로 50%를 넘겼으나, 2009년 경제위기로 다시 49.2%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2010년 49.4%, 2011년 49.7%, 2012년 49.9%로 상승추세로 나타났다. 여성경제활동인구는 1998년 8,576천명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인 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10,076천명, 2010년에는 10,256천명, 2011년은 10,416명, 2012년 10,609명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3). 이처럼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인구수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문제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다.

결혼 후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의 많은 여성은 주부의 역할 뿐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역할까지 포함한 다중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정문숙, 박경아, 1997; 유일영 등, 1998)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은 역할 과잉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Barnett & Baruch, 1992).

이현주(199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는 사회관련 요인인 자신의 결혼 만족도와 가족관련 요인인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혔으며,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죄책감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느끼는 자녀양육스트레스가 자신만의 요인보다는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나 여부인 사회적 요인이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희경(1998)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자녀 변인인 자녀의 성별, 전통적 어머니 역할관, 보육만족도 및 경제적 요인인 보육비용으로 밝혔다. 자녀가 남아이며, 어머니 역할관이 전통적일수록, 그리고 보육만족도가 낮을수록, 보육비용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보육만족도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만족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전통적 역할관, 자녀의 성별, 보육비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편은숙(2004)의 연구에서도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전통적 어머니 역할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차삼숙(2005)은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의 인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자녀가 1명일 때보다 2명 이상일 때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역할과 직업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취업모에게 있어 자녀수가 많은 것은 곧 시간부족, 활동제약, 신체적·심리적 부담감, 재정적 뒷받침 등으로 이어지고 더욱이 유아기 자녀는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 많은 자녀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측면에서 김기현(2000)은 가족의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육구 충족 자원이 풍부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여유를 주므로 자녀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경제적 요인이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경우 정안나(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저소득층의 어머니들에 비해 취업모의 자녀양육스트레스가 더 적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김정애(2000)의 연구에서도 취업모의 자녀양육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자녀 관련 요인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더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밝혔다. 그 이유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생활영역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며 경제적인 부담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양질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희와 문혁준(2006)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조사에서 취업모가 비취업모 보다 부모역할 만족도, 부모자녀관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정이라는 영역 외에서 경제적인 보상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사회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성취감이 부모로서의 역할 만족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영은(2012)은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편이 가사와 양육을 분담하고 아내의 직장생활을 이해하며 관심을 가질수록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졌으며, 이를 통해 최근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와 함께 취업모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하는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반면 김수연(2010)의 연구 결과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물학적 돌봄 수준, 영아 놀이참여 수준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취업유무 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미혼모의 영유아 양육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 미혼모 출산 현황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전체	435,435	436,455	484,550	471,265	470,171

10대 전체	2,549	2,833	2,946	2,998	2,934
15세 미만	22	20	29	19	34
16세	181	210	18	166	188
17세	328	367	374	328	353
18세	612	658	673	661	601
19세	1,356	1,503	1,616	1,762	1,667
20-24세	21,171	22,051	24,619	24,648	24,538

<표 II-2> 미혼입양모와 미혼양육모의 학력 현황

구분		미혼입양모		미혼양육모
		1997	2005	2010
학력 현황	초졸이하	24(1.9%)	5(2.1%)	-
	중졸이하	181(14.4%)	33(14.2%)	90(14.2%)
	고졸이하	991(70.0%)	153(66%)	340(53.5%)
	대졸이하	165(13.1%)	41(17.7%)	205(32.3%)
	합계	1,258(100%)	238(100%)	635(100%)

미혼모의 정서적인 불안의 요인이 심리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미혼모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복귀 후의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미혼모의 스트레스 관리, 미혼모 시설 내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김영숙, 1998; 김만지, 2000; 이지연, 1995) 수행되었다.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의 중심에 있는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김만지(2000)의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개입 과정 기록과 주숙남(1999), 이숙희(2001)의 미혼모의 삶의 맥락에 질적 연구를 통해 파악되는 미혼모의 자녀 양육스트레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장래에 대해 특히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는 사회적 낙인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야 할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미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냉대, 학교 복학문제, 자립문제, 성격 및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의지는 있으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혼부와의 미해결된 관계 및 갈등도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임신을 하게 된 후 미혼부와 그 부모의 책임회피와 거절은 이들에게 불신감, 배반감, 억울함을 느끼게 하며, 남자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나 미혼모 자신도 미혼부와 관계를 계속하고 싶지만 부모가 반대하는 것 등에 대해 자녀 양육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원 가족과의 관계도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임신사실을 부모에게 비밀로 한 것, 부모에 대한 죄책감, 가족들의 비난,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에 대해 스트레스를 겪으며 불안, 우울 등을 경험하고 있다.

다섯째, 미혼상태로 임신을 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 또한 중요한 자녀 양육스트레스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미혼모 시설에 대한 이웃의 편견과 비난, 임신한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수치심과 서러움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심리적인 요인을 압박하는 영향 요인 중 하나인 경제적인 부담도 미혼모의 심리상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작용하고 있다. Connolly 등(2012)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미혼모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임신에서부터 부모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역할 수행에 중요한 요소인 배우자 지지가 전무하고, 사회에서의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가 쉽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Leahy-Warren과 McCarthy(2011)은 출산 후 여성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우울이나 양육스트레스 같이 정서적·심리적인 혼란이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일으키기 쉬워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미혼모들이 느끼는 사회의 시

각에 관한 김혜영과 선보영(2010)의 연구결과에서는 약 90%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양육 결정한 경우는 ‘취업할 때’가 가장 높았다고 인식하고, 입양을 결정한 경우는 ‘결혼할 때’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사회가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임선희(2007)는 미혼양육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에서 미혼양육모가 가장 크게 느끼는 스트레스를 가족 관련 요인인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고, 다음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요인인 아기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경제적 요인인 아기 양육하는데 있어서 생계와 관련된 순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밝혔다. 정용순(2002)은 미혼양육모는 임신을 인지하고 출산을 준비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데, 영유아를 양육하면서도 주거비, 아동양육비, 식비 등 생활비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혔다. 이처럼 미혼양육모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할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요인은 경제적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남미애(2013)의 연구에서는 미혼양육모의 스트레스의 주요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으로는 양육 스트레스, 부모 지지, 공동생활가정 이용 유무, 미혼모에 대한 지역사회 편견과 차별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양육미혼모의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으로는 양육 스트레스, 부모 지지, 미혼모에 대한 지역사회편견과 차별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양육 스트레스, 부모 지지, 공동생활가정 이용, 미혼모에 대한 지역사회 편견과 차별 등 생태체계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양육미혼모의 우울과 전반적 생활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김은지 등(2011)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생활, 사회적 독립, 원 가족과의 관계 등에서 청소년 미혼모는 사회적 배제를 고스란히 받아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미혼모는 성인으로서 성장해야 하는 인생과업을 안고 있으면서 이른 나이에 자녀양육과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양육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혼모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연령특성으로 인하여 중졸 31.8%, 고

졸 55.1%로 학력수준이 전체적으로 낮고, 비취업이 74.2%를 차지하여 안정적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은지 외, 2011). 이에 따라 자기 집에 거주할 경우 93%가 월세형태로 거주하는 등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거치면서 원 가족과 관계가 단절되어,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으로 34.8%가 아이라고 응답하고 부모와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도 매우 높아(아버지 37.5%, 어머니 27.8%) 정서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양육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학업 중단으로 인한 학력(Kim & Yoon, 2000), 연령(Kim, 1990), 경제적 지원,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전통적 역할과 역량(Kang & Cho, 1999),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성향(Koh, 1994), 자기효능감 저하(Shin & Chung, 1998) 요인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경제적 요인

미혼양육모는 대다수가 고졸과 대학교 재학 이상의 교육수준이며 임신초기 경제활동을 했던 비율이 7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시점에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49.6%로 나타나며, 출산 후 자녀양육에 전념하는 비율이 26.5%인 것으로 확인된다. 즉, 자녀 양육 및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경력이 단절됨으로 인해 소득에의 상실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혼외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으로 미혼양육모의 대부분이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경력단절의 영향으로 출산 후 직업분포에서 아르바이트와 서비스업 종사자가 소폭 증가 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직업으로 이동함으로써 소득 감소를 겪기도 하였다(이미정, 2010).

미혼양육모의 경우 경제적인 여건으로 불안정한 주거형태에 거주하므로 도시 도심보다는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에, 그리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시간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는 종일제, 시간 연장 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등의 정부지원시설을 증설하여야 하지만, 현재 정부지원시설의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 중 11.8%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12).

미혼양육모는 임신을 인지하고 출산을 준비하면서부터 출산 비용이 필요하며, 양육을 하면서는 주거비, 아동양육비, 식비 등 생활비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미혼양육모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가장 어렵게 만든 요인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이유(53.8%)를 꼽았으며(정용순, 2002), 자녀 양육을 결정한 미혼양육모의 경우에도 향후 자녀 양육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경제적인 문제(73.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 양육 시 필요한 도움으로는 경제적 지원(43.8%)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다(허남순 외, 2005). 유미영(2007)의 연구 결과에서도 청소년 미혼모의 약 50%는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하고 75%는 5년 이내에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미혼양육모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국내·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 부모 가족의 가계소득액은 한국평균(3,631,700원)의 25%에 불과하고, 소비지출도 한국평균(2,286,900원)의 50%다. 상용근로자 비율은 16~22%에 불과하며 한국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일용근로자 비율은 5~6배가 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모·부자가족 중 75%가 국민소득 수준의 2/3선 아래인 상황이며, 특히 모자가족 중 50%만이 임금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덴마크에서도 경제적 빈곤의 측면에서 모자가족은 결혼한 커플보다 빈곤하며, 모자가족이 부자가족보다 더욱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시백, 2002; 이종수, 2003).

나. 심리적 요인

미혼모는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결혼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 친척의 눈을 피하여 가출을 한다. 미혼모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혼모들은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체계가 감소되어 신체적, 정신적 불안정을 가져오기 쉽다. 이뿐 아니라 일반 산모와 동일하게 아기를 출산하지만 주위사람들의 지지와 축복, 격려를 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아기의 입양으로 인해 심한 상실감을 경험하게 된다(정마리아 외, 2000).

Miller와 Power(1985)는 소외와 상실을 경험하는 미혼모에게 새로운 삶의 개척과 사회복귀를 위해 희망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희망은 생활과 성장을 위한 정

신적 실행의 점수이며, 미래에 더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미혼모에게 높은 수준의 행동기능을 달성하고자 심리적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고, 새로운 경험을 능동적으로 추구하게 하는 체제를 자극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유미영(2007)은 미혼모가 낳은 자녀들은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자녀들에게 교육할 기회를 북돋아 주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련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 예컨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김유경 외, 2006)에 의하면, 미혼모 시설에 있는 응답자의 64.7%, 양육모 그룹홈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33.3%가 사회적으로 미혼모를 죄인시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이웃 및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가족 및 친척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편견이 특히 심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혼모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과 도움,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경우(Dennison & Coleman, 1998), 미혼모가 아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에 대한 가정교육에 있어서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할 경우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도 있다(김기현 외, 2007).

다. 사회적 지지

이숙희(2001)의 연구에서 미혼모의 영유아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낙인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야 할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부와 미해결된 관계 및 갈등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임신을 하게 된 후 미혼부와 그 부모의 책임회피와 거절은 이들에게 불신감, 배반감, 억울함을 느끼게 하며, 원 가족과의 관계도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Stewart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미혼모의 영유아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 사회적 인식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인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

겨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모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낙인효과로 인해 학업지속, 양육 등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순, 2008).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미혼모는 사회적 인식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인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껴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 요인은 사회적 및 경제적 지지가 뒷받침 되면 충분히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Pederson, Christensen, Hesse, & Curtis, 2008; Rokach, 2005; Stewart et al., 2009)에서 나타나고 있다.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발달

어머니는 영유아와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중요한 상호작용의 대상이다(김현희, 2009; Pianta, Nimetz, & Bennett, 1997). 이 시기에 영유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주변 환경을 탐색해 나가며, 영유아의 전반적인 삶의 기반을 형성하므로 어머니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양하영, 2010), 어머니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의 영향은 영유아기 이후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미옥, 2007; 이자형, 1998).

어머니의 양육특성인 인지적, 심리적인 내적 특성으로 모 자신의 애착관계, 양육지식, 자녀관, 부모역할 만족감,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등의 요인이 자녀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미숙, 2005; Coleman & Karraker, 1997).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양육하는 자녀의 친밀성 및 관계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andler, Miller, Short, & Wolchik, 1989).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결핍은 영유아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고은·오숙현, 2006), 놀이, 일상, 책 읽어주기 등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전반적인 언어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금주, 2000).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어머니는 영유아 자녀와 교감을 이루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의 디딤돌을 놓게 된다. 반면 이 과정에서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양육 과정에서 어머니가 심한 양육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자녀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연구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유아의 전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et al., 2010), 어머니가 겪는 자녀 양육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유아에게 전달되어 유아의 심리적·정서적 불안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 정도와 양육 행동 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Chyung, 2008; Feldman, Eidelman, & Rotenberg, 2004)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민감성이 떨어지는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임으로 자녀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양하영과 박혜원(2011)의 양육관련변인과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 행동의 관계 연구에서 만 1세~3세 영아 72명과 그들의 어머니 72쌍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상호작용행동과 영아의 상호작용 행동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영아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전반적 반응성이 높을수록 영아의 부정적인 기분은 낮게 나타나고, 놀이집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강제성은 영아 행동 요인 중 부정적 기분과는 정적으로, 지속적 주의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보상은 영아행동 요인 중 지속적 주의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부정적 보상은 영아의 부정적 기분 외에도 활동수준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지속적 주의 및 모와 참여 간에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처벌은 아동의 주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정희와 문혁준(200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역할 만족도 조사에서 취업모가 비취업모 보다 역할 만족도, 부모자녀관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은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정이라는 영역 외에서 경제적인 보상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사회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성취감이 바탕이 되어 부모로서의 역할 만족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교감을 높이고 자녀를 대하

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온화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천혜영과 김영희(2012)의 어머니의 불안과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불안은 어머니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울, 양육스트레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 양육에 있어 언어적 상호작용과 민감성과 같은 어머니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어머니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에서 처벌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처벌과 같은 어머니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통해 언어적 상호작용과 민감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요인에 의한 양육스트레스는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술 및 긍정적인 정서수준을 현저히 낮추고, 부모와 자녀관계 같은 친밀한 관계를 손상 시킨다(김은실, 2008; 이유진, 2006).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고, 자녀가 우울과 유사한 형태의 정신 병리를 가지게 할 수 있으며(김수원, 2006), 영유아와 상호작용에서 짜증을 내거나 손으로 때리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Cohn et al, 1990). Patterson(1984)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가 일상에서 사소한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며 이는 유아의 공격성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가 느끼는 불안 및 반항,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고 하였다(Nancy & Kevin, 2001).

임순화(200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자녀수 및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소득수준이 정적 영향을, 양육스트레스에서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변인이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과 어머니의 학력이 영아의 표현어휘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수준은 높으나, 어머니가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

냈다. 또한 이경하(2009)의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영유아의 발달 수준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결국 자녀의 존재는 부모에게 심리적·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며, 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동전의 양면성처럼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감과 가사 노동의 증가는 어머니에게 개인적 여유를 주지 않고 정체감 상실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고성혜, 1994), 이로 인한 어머니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영유아 자녀는 인지구조, 정서적인 측면, 건강 등에서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4. 선행연구 분석

자녀양육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서 체계, 행동 체계, 생리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개인 자신에게 특유 반응을 야기하는 모든 것을 총칭한 개념이다(이현정, 1996).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잠재적이고 위협적이며 도전적 상황들에 접하게 됨으로써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Compas, 1987). 자녀양육스트레스를 Crinic과 Booth(1991)는 유아의 발달 및 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인식과 개인적 성격의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변화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양육 스트레스요인에 대한 연구결과가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에 따라서 어떠한 선행연구 결과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미선(2000)의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산후우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에서 남편의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남편의 지지가 높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반대로 남편의 지지가 낮고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자녀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숙(1994)의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결과 자녀관련 요인인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사회관련 요인인 전업주부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녀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요인과 가족관련 요인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이며, 자녀의 수와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Abidin은 취업주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자녀 양육이고, 생후 첫 3년 동안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자녀 관계의 형성 및 자녀의 정서와 행동 발달에 있어 결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하였다(김선희, 201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주부는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주의와 적절한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지하여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강희경, 조복희, 1999).

임선희(2007)의 미혼양육모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결과에서는 가족관련 요인에 해당하는 사항인 부모님께 죄송스러움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냈고, 부모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요인에서 아기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아기를 양육하기로 했지만 생계를 어떻게 할지 막막함인 경제적 요인 등의 순으로 자녀양육스트레스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정용순(2002)은 미혼양육모는 임신을 인지하고 출산을 준비하면서부터 출산 비용이 필요하며, 양육을 하면서는 주거비, 아동양육비, 식비 등 생활비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히며, 미혼양육모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요인 중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숙희(2001)의 연구에서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낙인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야 할 미래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부와의 미해결된 관계 및 갈등도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임신을 하게 된 후 미혼부와 그 부모의 책임회피와 거절은 이들에게 불신감, 배반감, 억울함을 느끼게 하며, 원 가족과의 관계도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임신사실을 부모에게 비밀로 한 것, 부모에 대한 죄책감, 가족들의 비난,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에 대해 스트레스를 겪으며 불안, 우울 등을 경험하고 있다.

Stewart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 측면에서 미혼모는 사회적 인식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인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껴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모는 사회적 요인으로 부정적인 시선과 낙인효과로 인해 학업지속, 양육 등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순, 2008).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혼양육모는 가족관계 요인, 자녀관계 요인,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들 모두 미혼양육모에게 양육스트레스를 주며 상황과 연구과정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강도가 다를 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및 전업주부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미례(2006)의 연구에서 20, 30대 기혼 전업주부들이 갖는 자녀양육스트레스의 요인은 가족관련 요인인 가사노동문제, 건강문제, 남편과의 관계, 자녀관련 요인인 자녀와의 관계, 경제적 요인인 주거환경문제, 경제적 수입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미경(2011)의 연구 역시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양육비용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 육아정보 선택,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199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는 사회관련 요인인 자신의 결혼 만족도와 가족관련 요인인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혔으며,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에 대한부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죄책감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느끼는 자녀양육스트레스가 자신만의 요인보다는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느냐인 사회적 요인이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인숙(1994)의 전업주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자녀관련 요인인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사회관련 요인인 전업주부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녀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였다. 이는 자녀요인과 가족관련 요인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이며,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양미선(2000)의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 주부의 산후우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에서 남편의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도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남편의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반대로 남편의 지지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자녀양육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련 요인이나 사회 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김정(2005)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하였고, 김기현(2000)의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가족관계와 사회적지지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김리진과 윤종희(2000)의 연구도 같은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강희경(1998)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자녀 변인인 자녀의 성별, 전통적 어머니 역할관, 보육만족도 및 경제적 요인인 보육비용으로 밝혔다. 자녀가 남아이며, 어머니 역할관이 전통적일수록, 그리고 보육만족도가 낮을수록, 보육비용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보육만족도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만족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전통적 역할관, 자녀의 성별, 보육비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편은숙(2004)의 연구에서도 양육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전통적 어머니 역할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차삼숙(2005)은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의 인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자녀가 1명일 때보다 2명 이상일 때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역할과 직업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취업모에게 있어 자녀수가 많은 것은 곧 시간부족, 활동제약, 신체적·심리적 부담감, 재정적 뒷받침 등으로 이어지고 더욱이 유아기 자녀는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 많은 자녀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측면에서 김기현(2000)은 가족의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욕구 충족 자원이 풍부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여유를 주므로 자녀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경제적 요인이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경우 정안나(2006)의 연구에서와 같이 저소득층의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김정애(2000)의 연구에서도 취업모의 자녀양육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자녀 관련

요인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더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밝혔다. 그 이유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생활영역에 투입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며 경제적인 부담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양질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미혼양육모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가족관계 요인, 자녀관계 요인, 사회·문화적, 경제적 요인 등이 주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 간 순위의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미혼양육모와 전업 및 취업주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들을 비교해 보면 <표 II-3>와 같다. 공통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어머니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가족관계, 자녀관계, 사회적 또는 문화적 지지에 대한 원인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를 겪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전업 및 취업주부가 겪는 양육스트레스와 미혼양육모가 겪는 스트레스요인은 모두 동일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요인들이 전업 및 취업주부, 미혼양육모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강도에 따른 우선순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3>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 양육스트레스 요인 비교

	양육스트레스 요인				
	가족관계	자녀관계	어머니의 전통적역할	사회·문화적 지지	경제적 어려움
전업주부	김미례(2006) 양미선(2000) 김 정(2005)	김미례(2006) 이현주(1998) 이인숙(1994)	권미경(2011) 이현주(1998)	이현주(1998) 이인숙(1994) 양미선(2000) 김 정(2005)	김미례(2006) 권미경(2011)
취업주부		강희경(1998) 차삼숙(2005) 김정애(2000)	강희경(1998) 편은숙(2004)		강희경(1998) 김기현(2000) 정안나(2006) 김정애(2000)
미혼양육모	임선희(2007) 이숙희(2001)		임선희(2007)	이숙희(2001) Stewart 등(2009)	임선희(2007) 정용순(2002)

출처: 선행연구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구성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 60명, 취업주부 60명, 미혼양육모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대한 표집방법은 보건소, 도서관, 어린이집, 센터, 시설에서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어머니는 영유아와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중요한 상호작용의 대상이다(김현희, 2000). 이 시기에 영유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주변 환경을 탐색해 나가며, 영유아의 전반적인 삶의 기반을 형성하므로 어머니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양하영, 2010), 어머니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의 영향은 영유아기 이후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미옥, 2007; 이자형, 1998). 이러한 이유로 자녀를 영유아기로 제한한 것이다.

자녀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로 나누어 자녀 1명 이상을 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근거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고 우리 문화에 맞게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어머니 자녀 양육스트레스 도구의 스트레스 척도 문항번호 및 문항수는 <표Ⅲ-1>와 같다.

1) 자녀양육스트레스

전업주부 · 취업주부 · 미혼양육모의 영유아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 Crinic(1990) 그리고 Mann(1990)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김기현·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녀양육 스트레스 하위요인으로 일상적스트레스 (12문항), 부모역할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그렇다’에 5점까지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전업주부·취업주부·미혼양육모의 개인적 요인

전업주부·취업주부·미혼양육모의 개인적 요인은 본인 나이, 본인의 학력, 종교, 가족형태, 자녀의 나이와 성별, 자녀의 수, 거주하는 곳의 형태, 거주하는 곳의 만족도, 직업의 유무, 한 달 평균 수입, 자녀돌봄에 있어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여부, 아이돌봄 서비스 받는지에 대한 여부,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아이돌봄 서비스에 바라는 사항, 보육시설 이용하고 있다면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자녀의 건강 상태, 자녀의 기질, 배우자의 양육참여, 배우자로부터 받는 정서적지지, 아기 아빠와의 행복정도, 본인의 위치에 대한 만족도, 자녀양육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인지? 자녀양육 스트레스 최소화하기 위한 나의 역할, 자녀양육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 사회, 국가에게 바라는 사항이 포함 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표 III-1> 측정분야별 구성문항

구분	구성 변수	문항 수
일반적 특성	- 나이 / 학력 / 종교 / 직업 유무 / 가정의 월수입 - 가족형태 / 자녀의 나이와 성 - 거주지 / 거주지 만족도	9문항
아이돌봄 관련 인식	- 아이돌봄시 도움받는 주체 - 보육시설만족도 - 자녀의 건강상태 - 자녀의 기질 - 남편의 양육 참여 정도 - 남편의 정서적지지 - 남편과의 관계 - 자기 만족도 평가	8문항

구분	구성 변수	문항 수
양육스트레스 관련 부모역할 부담 (12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하다 -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 아이가 집을 너무 어지럽힌다 - 아이를 돌보느라 다른 집안일을 할 수가 없다 -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 시간에 맞춰 외출하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다 - 아이와 함께 외출했을 때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 아이를 매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출근하기 어렵다 -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 아이가 태어난 이후 퇴근 후에 밀려 있는 집안일이 짜증스럽다 	32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 아이 때문에 모임에 가면서도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가 않다 -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 내가 부모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 양육비용이나 탁아비용이 부담스럽다. -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구분	구성 변수	문항 수
타인 양육 죄책감 (8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동안 다칠까봐 걱정된다 -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얼굴이나 손이 더러워서 화가 난 적이 있다 -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기저귀나 옷이 젖은 채로 있어서 화가 난 적이 있다 - 할머니에게 애를 맡기게 되면 버릇이 나빠질까봐 걱정된다 - 근무하는 동안 아이에게 갑작스런 문제가 생겼을 시 즉시 가보지 못해 안타까웠던 적이 있다 -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이를 거칠게 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 아이가 아픈 것을 직장에 다니는 엄마 탓으로 돌리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 아이의 잘못을 직장에 다니는 엄마 탓으로 돌리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업주부 10명과 어린이집 선생님 10명, 한 부모 가정의 어머니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소요시간과 질문지에 대한 반응을 파악한 뒤, 질문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용어, 부적절한 응답 범주의 내용을 지도교수님과 건강지원센터 선생님 그리고 사회복지학교수님에게 질문지의 타당성을 의뢰하였으며, 이들과 협

의 하에 수정 보완하여 조사 목적에 맞도록 질문지를 재구성 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6년 4월12일부터 4월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원장 도서관의 관장에게 사전 허락을 받고 개인의 동의하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본 조사 대상은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중류층 영유아들이 취원하고 있는 5곳의 어린이 집과, 도서관북스타트에 참여하는 0세에서 만 6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미혼양육모는 시설과 공공기관을 통하여 사전허락을 받고 개인의 동의하에서 설문이 이루어졌다.

3) 자료수집

각 기관의 원장을 통해서 150부의 설문지를 배분하였으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교사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검사 실시 방법을 설명하였다. 또한 교사가 등·하원시키는 어머니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직접 전달하였다. 이 중에서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나, 누락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전업주부 60부, 취업주부 60부를 최종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미혼 양육모설문지는 70부를 배포하였다. 시설에 있는 미혼 양육모는 시설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으나, 재가에 있는 미혼양육모의 설문지는 센터 선생님들께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62부가 회수되었는데 2부는 무응답 문항이 많아 분석자료에서 제외하고, 60부를 최종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의 영유아 자녀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유의수준 5%, 1%, 0.1% 신뢰수준에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일반적 특성

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모이다. 각각 60명씩 180명(각각 33.3%)을 조사하였고,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V-1>과 같다.

구체적으로, 연령대는 30대가 112명(62.2%)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대(16.7%), 40대(15.6%), 10대(3.9%)의 분포를 보였다. 가장 어린나이는 15세, 가장 많은 나이는 48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중퇴~대졸이하”가 127명(70.6%)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고졸이하(20.0%), 기타(5.6%), 대학원이상(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살펴보면, 기타 종교가 60명(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불교(28.3%), 무교(13.9%), 기독교(12.8%), 천주교(11.7%)의 분포로 나타났다.

<표 IV -1>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명(%)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합계
양육형태	전업주부	60	33.3	180(100)
	취업주부	60	33.3	
	미혼모	60	33.3	
연령	10대	7	3.9	180(100)
	20대	30	16.7	
	30대	112	62.2	
	40대	28	15.6	
	무응답	3	1.7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합계
학력	고졸이하	36	20.0	180(100)
	대학중퇴~대졸이하	127	70.6	
	대학원이상	5	2.8	
	기타	10	5.6	
	무응답	2	1.1	
종교	불교	51	28.3	180(100)
	기독교	23	12.8	
	천주교	21	11.7	
	기타종교	60	33.3	
	없음	25	13.9	
직업 유무	있음	92	51.1	180(100)
	없음	87	48.3	
	무응답	1	0.6	
월수입	100만원이하	29	16.1	180(100)
	101-200만원이하	27	15.0	
	201-300만원이하	24	13.3	
	301-400만원이하	29	16.1	
	401-500만원이하	41	22.8	
	501만원이상	20	11.1	
	무응답	10	5.6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직업을 가지고 있다’ 51.1%(92명),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 48.3% (87명)으로 나타났다. 월수입(배우자, 보조금, 임대수입 등 모든 수입을 포함)의 경우, 500만원이하 소득군이 41명(2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00만원이하와 100만원이하가 동일하게 16.1%, 200만원 이하-15.0%, 300만원이하-13.3%, 501만원이상-11.1%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만원이하의 소득군에는 월소득이 10만원, 15만원이라고 응답한 저소득자도 있었고, 501만원 이상의 소득군에는 월소득이 2000만원이라고 응답한 고소득자도 있었다.

2) 가족 형태 및 자녀 특성

연구 대상자의 가족 형태 및 자녀 특성은 다음 <표Ⅳ-2>와 같다. 먼저 가족 형태를 살펴보면, 핵가족(부부+자녀)으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64.4%(116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부모+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가 20.6%(37명), 부부+자녀+시부모(시댁식구)로 구성된 가족 형태(5.0%), 부부+자녀+친정부모(친정식구)로 구성된 가족 형태(2.8%), 한부모+자녀+동거인으로 구성된 가족 형태(1.7%) 순이다.

자녀의 성별과 연령을 첫째·둘째·셋째 자녀로 나눠 살펴보았다. 첫째 자녀의 성별은 남자가 48.3%(87명), 여자가 49.4%(89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1세부터 23세까지 다양한 연령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 중 1세가 23.9%(43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3세 13.3%(24명), 2세 12.2%(22명), 4세 8.3%(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경우, 성별에서 남자 17.8%(32명), 여자 32.2%(58명), 무응답 50%(90명)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세부터 20세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 중 무응답 49.4%(89명)을 제외하고 1세가 12.2%(22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3세 6.7%(12명), 2세 5.6%(10명), 5세 5.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의 경우 성별은 남자가 48.3%(87명), 여자가 49.4%(89명), 무응답 81.1%(146명)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1세부터 18세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 중 무응답 80.6%(145명)을 제외하고 1세가 7.8%(14명), 3세 2.8%(5명), 2세 2.2%(3명), 4세와 5세, 6세 각 1.7%(3명), 8세와 10세, 18세 각 0.6%(1명)의 분포를 보였다.

<표 Ⅳ-2> 가족 형태 및 자녀 특성

		단위:명(%)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합계
가족 형태	핵가족(부부+자녀)	116	64.4	180(100)
	부부+자녀+시부모(시댁식구)	9	5.0	
	부부+자녀+친정부모(친정식구)	5	2.8	
	한부모+자녀+동거인	3	1.7	
	한부모+자녀	37	20.6	
	기타	8	4.4	
	무응답	2	1.1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합계
성별		남	87	48.3	180(100)
		여	89	49.4	
		무응답	4	2.2	
첫째 자녀	연령	1세	43	23.9	180(100)
		2세	22	12.2	
		3세	24	13.3	
		4세	15	8.3	
		5세	14	7.8	
		6세	7	3.9	
		7세	10	5.6	
		8세	10	5.6	
		9세	7	3.9	
		10세	4	2.2	
		11세	5	2.8	
		12세	6	3.3	
		13세	4	2.2	
		14세	2	1.1	
		15세	1	0.6	
		16세	1	0.6	
		19세	2	1.1	
		20세	1	0.6	
		23세	1	0.6	
			무응답	1	
둘째	성별	남	32	17.8	180(100)
		여	58	32.2	
		무응답	90	50.0	
자녀	연령	1세	22	12.2	180(100)
		2세	10	5.6	
		3세	12	6.7	
		4세	7	3.9	
		5세	9	5.0	
		6세	6	3.3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합계
	7세	4	2.2	
	8세	3	1.7	
	9세	3	1.7	
	10세	5	2.8	
	11세	5	2.8	
	12세	1	0.6	
	14세	1	0.6	
	15세	2	1.1	
	20세	1	0.6	
	무응답	89	49.4	
성별	남	15	8.3	180(100)
	여	19	10.6	
	무응답	146	81.1	
셋째 자녀 연령	1세	14	7.8	180(100)
	2세	4	2.2	
	3세	5	2.8	
	4세	3	1.7	
	5세	3	1.7	
	6세	3	1.7	
	8세	1	0.6	
	10세	1	0.6	
	18세	1	0.6	
	무응답	145	80.6	

3) 거주지 및 거주지 만족도

연구대상자의 거주지 및 거주지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IV-3>과 같다. 먼저 거주지를 살펴보면 자가 43.3%(7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임대 25.6%(46명), 공동주택 13.9%(25명), 시설 11.1%(20명), 기타 5.0%(9명), 무응답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이 50.6%(91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보통’ 25%(45명), ‘매우 만족’ 12.8%(23명)로 나타나, 비교적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 거주지 및 거주지 만족도

단위:명(%)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합계
거주지	자가	78	43.3	180(100)
	임대	46	25.6	
	공동주택	25	13.9	
	시설	20	11.1	
	기타	9	5.0	
	무응답	2	1.1	
	거주지	매우 불만족	5	
만족도	대체로 불만족	12	6.7	
	보통	45	25.0	
	대체로 만족	91	50.6	
	매우 만족	23	12.8	
	무응답	4	2.2	

2.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분석

1)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4>와 같다. <표IV-4>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자녀양육 일반’, ‘부모역할 부담’ 및 ‘타인양육 죄책감’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양육 스트레스 전체에서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데($F=.351, p=.705$), 스트레스 수준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평균 2점대)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양육 스트레스(평균 2.85점)가 전업주부 및 취업주부의 양육스트레스(각각 동일하게 평균 2.76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 4> 어머니의 양육형태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차이 검증

구분		N	M	SD	F	p
자녀양육일반	전업주부	60	3.10	.70	.147	.863
	취업주부	60	3.09	.74		
	미혼양육모	60	3.03	.83		
	전체	180	3.06	.75		
부모역할 부담	전업주부	60	2.68	.63	.922	.400
	취업주부	60	2.65	.65		
	미혼양육모	60	2.81	.79		
	전체	180	2.72	.69		
타인양육 죄책감	전업주부	60	2.37	.83	1.490	.228
	취업주부	60	2.51	.57		
	미혼양육모	60	2.61	.83		
	전체	180	2.50	.75		
양육스트레스 전체	전업주부	60	2.76	.60	.351	.705
	취업주부	60	2.76	.56		
	미혼양육모	60	2.85	.74		
	전체	180	2.79	.64		

구체적으로 ‘자녀양육일반’의 경우 양육형태별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F=.147, p=.863$)으로 나타났고, 타 영역에 비해 스트레스(평균 3점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업주부, 취업주부의 양육 스트레스(각각 평균 3.10점, 평균 3.09점)가 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평균 3.03점)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아이 돌봄 관련 인식 분석

1)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아이 돌봄 도움 대상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아이 돌봄에 있어 도움을 받는 대상을 분석한 결과, 양육형태별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77.205, P=.000$)가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70.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취업주부에 비해 친정 부모나 시부모, 기타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취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도움(48.3%), 기타 도움(20.0%), 친정부모 도움(18.3%)을 비교적 골고루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경우, 무응답을 제외하면, 친정부모의 도움(28.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도움(18.3%), 아이 돌봄서비스(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업주부의 경우, 아이 돌봄을 전담한다는 인식 때문에 남편 외에는 친정부모, 기타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취업 주부의 경우, 남편 외에도 친정 부모, 시부모, 기타 도움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혼모의 경우, 아이돌봄에 있어 남편의 도움은 사실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친정부모의 도움,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5> 어머니의 양육형태별 아이 돌봄 도움받는 주체

단위:명(%)

구분	남편	친정 부모	시부모	이웃 아주머니	고용된 아기 돌보미	아기 돌봄 서비스	기타	무응답	전체
전업주부	42(70.0)	7(11.7)	2(3.3)	-	1(1.7)	-	7(11.7)	1(1.7)	60(100)
취업주부	29(48.3)	11(18.3)	5(8.3)	-	1(1.7)	2(3.3)	12(20.0)	-	60(100)
미혼모	6(10.0)	17(28.3)	1(1.7)	1(1.7)	-	6(10.0)	11(18.3)	18(30.0)	60(100)
전체	77(42.8)	35(19.4)	8(4.4)	1(0.6)	2(1.1)	8(4.4)	30(16.7)	19(10.6)	180(100)

$\chi^2=77.205^{***}, p=.000$

*** $p<.001$

2) 남편의 자녀 양육 지원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남편의 자녀 양육 지원 및 어머니와 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IV-6>와 같다.

<표 IV-6>에서는 남편의 자녀 양육 지원을 ‘남편의 양육참여 정도’와 ‘남편의 정서적 지지’ 및 ‘남편과의 관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남편의 양육참여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91.254, p=.000$)가 나타났다. 전업 주부의 경우, 많이 참여하는 편이다(41.7%), 조금 참여한다(31.7%), 보통 수준이다(25.0%)의 순으로 나타났고, 취업 주부의 경우, 조금 참여한다(33.3%), 보통수준이다(23.3%), 많이 참여한다(23.3%)로 나타났으며, 미혼모의 경우,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60.4%), 조금 참여한다(12.5%), 모든 일에 참여한다(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남편의 정서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84.099, p=.000$)가 나타났다. 전업 주부의 경우, 많이 받는다(45.0%), 약간 받는다(43.3%), 그저 그렇다(11.7%)의 순으로 나타났고, 취업 주부의 경우, 많이 받는다(45.0%), 약간 받는다(31.7%), 그저 그렇다(2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혼모의 경우, 전혀 받지 못한다(56.3%), 그저 그렇다(16.7%), 많이 받는다(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 남편의 자녀 양육 지원

		단위:명(%)			
구분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모	합계
남편의 양육참 여정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1.7)	2(3.3)	29(60.4)	32(19.0)
	조금 참여한다	19(31.7)	20(33.3)	6(12.5)	45(26.8)
	보통수준이다	15(25.0)	14(23.3)	4(8.3)	33(19.6)
	많이 하는 편이다	25(41.7)	14(23.3)	4(8.3)	43(25.6)
	모든 일에 참여한다	-	10(16.7)	5(10.4)	15(8.9)
전체		60(100)	60(100)	48(100)	168(100)
$\chi^2=91.254^{***}, p=.000$					

구분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모	합계	
남편의 정서적 지지	전혀 받지 못한다	0(0.0)	1(1.7)	27(56.3)	28(16.7)
	그저 그렇다	7(11.7)	13(21.7)	8(16.7)	28(16.7)
	약간 받는다	26(43.3)	19(31.7)	5(10.4)	50(29.8)
	많이 받는다	27(45.0)	27(45.0)	8(16.7)	62(36.9)
	전체	60(100)	60(100)	48(100)	168(100)
$\chi^2=84.099^{***}, p=.000$					
남편과 의 관계	극도로 불행	1(1.7)	0(0.0)	12(27.9)	13(8.0)
	매우 불행	-	2(3.4)	4(9.3)	6(3.7)
	약간 불행	9(15.0)	10(16.9)	9(20.9)	28(17.3)
	행복	47(78.3)	41(69.5)	15(34.9)	103(63.6)
	극도로 행복	3(5.0)	6(10.2)	3(7.0)	12(7.4)
	전체	70(100)	72(100)	73(100)	215(100)
$\chi^2=44.368^{***}, p=.000$					

*** $p<.001$

마지막으로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44.368, p=.000$)가 나타났다. 전업 주부의 경우, 행복하다(78.3%), 약간 불행하다(15.0%), 극도로 행복하다(5.0%)로 나타났고, 취업 주부의 경우, 행복하다(69.5%), 약간 불행하다(16.9%), 극도로 행복하다(10.2%)로 나타났으며, 미혼모의 경우, 행복하다(34.9%), 극도로 불행하다(27.9%), 약간 불행하다(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우자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정서적지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미혼모의 경우 남편과의 부정적인 관계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3) 어머니 양육형태에 따른 자녀의 특성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자녀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7>와

같다. <표 IV-7>에서는 자녀의 특성을 ‘건강상태’와 ‘기질’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선 ‘자녀의 건강상태’의 경우 양육형태별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chi^2=7.418$, $p=.492$)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모 모두, 자녀가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비율이 90%이상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기질’에서도 양육형태별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chi^2=8.107$, $p=.230$)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까다롭고 기르기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은 어머니의 양육형태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순하고 기르기 쉬운 편’이라는 응답은 미혼모(43.3%)가 전업주부(31.7%)나 취업주부(2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기질에 대한 결과는 미혼모는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가 많고,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판단된다.

<표 IV-7> 자녀의 건강상태 및 기질

		단위:명(%)			
구분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모	합계
건강 상태	장애가 있다	1(1.7)	1(1.7)	1(1.7)	3(1.7)
	질병이 있다	0(0.0)	0(0.0)	2(3.3)	2(1.1)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2(3.3)	0(0.0)	3(5.0)	5(2.8)
	건강하다	40(66.7)	39(65.0)	35(58.3)	114(63.3)
	매우 건강하다	17(28.3)	20(33.3)	19(31.7)	56(31.1)
	전체	60(100)	60(100)	60(100)	180(100)
		$\chi^2=7.418$, $p=.492$			
기질	까다롭고 기르기 어려운 편이다	6(10.0)	5(8.3)	5(8.3)	16(8.9)
	보통이다	33(55.0)	39(65.0)	26(43.3)	98(54.4)
	순하고 기르기 쉬운 편이다	19(31.7)	16(26.7)	26(43.3)	61(33.9)
	기타	2(3.3)	0(0.0)	3(5.0)	5(2.8)
	전체	58(100)	60(100)	57(100)	175(100)
		$\chi^2=8.107$, $p=.230$			

4)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보육시설 만족도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보육시설 만족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 양육형태별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5.300$, $P=.006$)가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보육시설 만족도가 평균 4.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주부(평균 4.22점), 미혼모(평균 3.9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8> 보육시설 만족도

구분	N	M	SD	F	p
전업주부	48	4.33	.595	5.300	.006
취업주부	54	4.22	.572		
미혼모	41	3.90	.768		
전체	143	4.17	.661		

** $p<.01$

5) 현재 상황에 대한 자기만족도 평가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자기만족도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양육형태별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16.007$, $P=.042$)가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만족도가 평균 3.66점으로 취업주부와 미혼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취업주부(평균 3.57점), 미혼모(평균 3.3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대체로 만족한다 이상이 약 60%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모의 경우, 보통이다(43.1%)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불만족 한다는 평가도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자기 평가

구분	평균	단위:명(%)					합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자기	전업주부	3.66	-	6(10.0)	13(22.0)	35(59.3)	5(8.5)	59(100)
	취업주부	3.57	-	6(10.0)	19(31.7)	30(50.0)	5(8.3)	60(100)
만족도	미혼모	3.36	3(5.2)	5(8.6)	25(43.1)	18(31.0)	7(12.1)	58(100)
	전체	3.53	3(1.7)	17(9.6)	57(32.2)	83(46.9)	17(9.6)	177(100)

$\chi^2=16.007^*$, $p=.042$

* $p<.05$

4.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분석

1) 어머니 연령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 스트레스’(F=.243, $p=.784$), ‘자녀양육 일반’(F=.563, $p=.571$), ‘부모역할 부담’(F=.211, $p=.810$), ‘타인 양육 죄책감’(F=.564, $p=.570$)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10대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녀양육 일반’ 및 ‘부모역할 부담’영역에서는 20대가, ‘타인양육 죄책감’영역에서는 30대가 양육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 10>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분석 결과

구분	연령대	N	M	SD	F	p
자녀양육 일반	20대 이하				.563	.571
	30대	37	2.94	.14		
	40대	112	3.10	.07		
	합계	28	3.06	.15		
부모역할 부담	20대 이하	177	3.06	.06	.211	.810
	30대	37	2.68	.14		
	40대	112	2.72	.06		
	합계	28	2.79	.13		
타인 양육 죄책감	20대 이하	177	2.72	.05	.564	.570
	30대	37	2.55	.13		
	40대	112	2.46	.07		
	합계	28	2.61	.15		
스트레스 전체	20대 이하	177	2.50	.06	.243	.784
	30대	37	2.74	.13		
	40대	112	2.79	.06		
	합계	28	2.85	.13		
		177	2.79	.05		

2) 어머니 종교

어머니의 종교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타인양육 죄책

감'(F=2.500, $p=.44$)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전체 스트레스'(F=1.446, $p=.221$), '자녀양육 일반'(F=1.193, $p=.316$), '부모역할 부담'(F=1.196, $p=.314$)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아닌 기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가운데, '자녀양육 일반'영역에서는 천주교도의 스트레스(평균 3.29점)가, '부모역할 부담'(평균 2.95점) 및 '타인양육 죄책감'(평균 2.85점)영역에서는 기독교도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 11> 어머니의 종교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분석 결과

구분	종교	N	M	SD	F	p
자녀양육 일반	불교	51	3.13	.81	1.193	.316
	기독교	23	3.10	.79		
	천주교	21	3.29	.66		
	기타종교	60	2.92	.75		
	무교	25	3.01	.68		
	합계	180	3.06	.75		
부모역할 부담	불교	51	2.73	.73	1.196	.314
	기독교	23	2.95	.77		
	천주교	21	2.69	.64		
	기타종교	60	2.60	.70		
	무교	25	2.79	.55		
	합계	180	2.72	.69		
타인 양육 죄책감	불교	51	2.57	.74	2.500	.044*
	기독교	23	2.85	.69		
	천주교	21	2.57	.85		
	기타종교	60	2.32	.70		
	무교	25	2.37	.79		
	합계	180	2.50	.75		
스트레스 전체	불교	51	2.84	.68	1.446	.221
	기독교	23	2.99	.69		
	천주교	21	2.87	.56		
	기타종교	60	2.65	.61		
	무교	25	2.77	.58		
	합계	180	2.79	.64		

* $p<.05$

3) 첫째 자녀 연령

첫째 자녀 연령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자녀양육 일

반'(F=1.911, $p=.129$)을 제외한 '전체 스트레스'(F=3.292, $p=.022$), '부모역할 부담'(F=3.081, $p=.029$), '타인 양육 죄책감'(F=2.984, $p=.03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역에서 첫째 자녀 연령이 16세 이상인 경우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자녀양육 일반'(평균 2.96점) 및 '부모역할 부담'(평균 2.56점) 영역에서는 11세-15세 이하의 경우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양육 죄책감' 영역에서는 4세-10세 이하(평균 2.39점)의 경우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 12> 첫째 자녀 연령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분석 결과

구분	첫째 자녀 연령	N	M	SD	F	p
자녀양육 일반	3세이하	90	3.05	.78	1.911	.129
	4세-10세이하	67	3.04	.65		
	11세-15세이하	18	2.96	.80		
	16세이상	5	3.83	.74		
	합계	180	3.06	.75		
부모역할 부담	3세이하	90	2.73	.71	3.081	.029*
	4세-10세이하	67	2.68	.63		
	11세-15세이하	18	2.56	.75		
	16세이상	5	3.58	.49		
	합계	180	2.72	.69		
타인 양육 죄책감	3세이하	90	2.52	.76	2.984	.033*
	4세-10세이하	67	2.39	.76		
	11세-15세이하	18	2.51	.60		
	16세이상	5	3.40	.69		
	합계	180	2.50	.75		
스트레스 전체	3세이하	90	2.79	.66	3.292	.022*
	4세-10세이하	67	2.74	.58		
	11세-15세이하	18	2.70	.61		
	16세이상	5	3.63	.60		
	합계	180	2.79	.64		

* $p<.05$

4) 거주지 만족도

거주지 만족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자녀양육 일반’(F=2.770, $p=.043$)과 ‘부모역할 부담’(F=4.291, $p=.006$)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 외 ‘전체 스트레스’(F=2.616, $p=.053$), ‘타인 양육 죄책감’(F=.183, $p=.908$)의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만족도가 낮은 경우, 거주지 만족도가 높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거주지 만족도가 낮은 경우, ‘자녀양육 일반’ 영역에서의 스트레스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 13> 거주지 만족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분석 결과

구분	거주지만족도	N	M	SD	F	p
자녀양육 일반	불만족	17	3.45	.92	2.770	.043*
	보통	45	3.14	.73		
	대체로 만족	91	2.93	.69		
	매우 만족	23	3.06	.81		
	합계	176	3.06	.75		
부모역할 부담	불만족	17	3.00	.78	4.291	.006**
	보통	45	2.92	.66		
	대체로 만족	91	2.58	.60		
	매우 만족	23	2.53	.85		
	합계	176	2.72	.69		
타인 양육 죄책감	불만족	17	2.47	.87	.183	.908
	보통	45	2.55	.75		
	대체로 만족	91	2.46	.72		
	매우 만족	23	2.42	.80		
	합계	176	2.50	.75		
스트레스 전체	불만족	17	3.04	.79	2.616	.053
	보통	45	2.91	.62		
	대체로 만족	91	2.68	.57		
	매우 만족	23	2.69	.69		
	합계	176	2.79	.64		

* $p<.05$, ** $p<.01$

5) 가정 월수입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타인 양육 죄책감’(F=3.150, $p=.045$)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 외 ‘전체 스트레스’(F=.970, $p=.381$), ‘자녀양육 일반’(F=.048, $p=.953$), ‘부모역할 부담’(F=2.200, $p=.114$)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 일반’은 저소득군에 비해 월401만원 이상의 고소득군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역할 부담’은 월200만원 이하의 저소득군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인 양육 죄책감’ 영역에서는 월201-400만원 이하의 소득군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군별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득군별 맞춤형 스트레스 해소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IV- 14> 가정 월수입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분석 결과

구분	가정 월수입	N	M	SD	F	p
자녀양육 일반	200만원이하	56	3.07	.83	.048	.953
	400만원이하	54	3.07	.67		
	401만원이상	60	3.11	.75		
	합계	170	3.09	.75		
부모역할 부담	200만원이하	56	2.83	.76	2.200	.114
	400만원이하	54	2.76	.61		
	401만원이상	60	2.58	.66		
	합계	170	2.72	.68		
타인 양육 죄책감	200만원이하	56	2.55	.88	3.150	.045*
	400만원이하	54	2.67	.63		
	401만원이상	60	2.32	.73		
	합계	170	2.51	.77		
스트레스 전체	200만원이하	56	2.85	.74	.970	.381
	400만원이하	54	2.85	.56		
	401만원이상	60	2.71	.60		
	합계	170	2.80	.64		

* $p<.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서 자녀를 둔 전업주부 60명, 취업주부 60명, 미혼양육모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기된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양육일반 스트레스, 부모역할부담 스트레스, 타인양육죄책감 스트레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라 남편의 자녀 양육 지원의 3가지 하위영역(남편의 양육참여정도($\chi^2=91.254^{***}$, $p=.000$), 남편의 정서적지지($\chi^2=84.099^{***}$, $p=.000$), 남편과의 관계($\chi^2=44.368^{***}$, $p=.000$)) 모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남편의 양육 참여, 정서적지지, 남편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모의 경우 양육참여, 정서적지지, 남편과의 관계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라 아이 돌봄 인식에 있어 도움을 받는 대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남편의 양육 참여, 정서적지지, 남편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양육모의 경우 양육참여, 정서적지지, 남편과의 관계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른 보육시설 만족도의 경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는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양육모는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한 자기 만족도 평가 역시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 양육모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형태에 따라 아이 돌봄에 있어 도움을 받는 대상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chi^2=77.205$, $p=.000$)가 나타났다. 전업모일수록 아이 돌봄 도움대상이 남편으로 한정되고, 취업모의 경우, 남편, 기타, 친정 부모로 다각화되며, 미혼모의 경우, 친정부모, 기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진(2004)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의 경우,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보면 자

기 일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게 되어 오히려 사회 여건상 부담되는 양육비와 교육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취업한 어머니들은 취업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 때문에 항상 아이들을 너그럽게 이해해주려는 노력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종교에 따라 “타인양육 죄책감”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2.500, p=.044$)가 나타났고, 첫째 자녀 연령에 따라 “부모역할 부담”($F=3.119, p=.027$), “타인양육 죄책감”($F=3.092, p=.028$), “스트레스 전체”($F=3.307, p=.022$)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지 만족도에 따라 “자녀양육 일반”($F=2.770, p=.043$) 영역과 “부모역할 부담”($F=4.291, p=.006$)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가정의 월평균수입에 따라 “타인양육 죄책감”($F=3.150, p=.045$)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에 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분석하였고, 대상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으로 인해, 1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결과를 탐색적 수준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 양육스트레스는 중간 수준 정도였고, 영유아기 기질은 순하다고 나타나고, 총 자녀 수,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연구대상은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연구대상을 확대해서 도시지역, 농촌지역 전업주부, 취업주부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하고, 직업별로 구분해서 조사를 한다면 보다 더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미혼양육모는 시설에 있거나, 시설에서 기간이 만료되어 퇴소하거나,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미혼양육모들로서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있고, 양육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으로 미혼 양육모 자조모임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더욱 건강한 어머니로서의 충분한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양육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유아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문제는 국가의 장래 자원을 육성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다문화 가정, 미혼양육모 가정, 한 부모 가정, 장애아를 둔 가정 모두 우리가 안고 가야할 문제이다. 이들이 보다 건강한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부모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주고, 양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가계 양육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적절한 광고와 홍보로 양육비지원에 대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 없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양육모와 그 자녀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미혼모시설에 사는 미혼양육모 가정과 재가에 있는 미혼양육모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자녀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 국가에서 직업교육을 시켜주고 직업 알선을 해주어 경제적으로 안정시켜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국가적 차원에서 예비부모교육,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의 자격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 보건소, 아동학대예방협회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업주부, 취업주부, 미혼양육모 양육스트레스를 요인별로 세분화시켜 좀 더 심층적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역별 스트레스 요인을 탐색하고, 요인별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연구

- 강영실(2000). 청소년 재임신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역할관과 지지체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고은, 오숙현(2006).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유무에 따른 영아기 언어발달 비교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8(1), 38-60.
- 권미경(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9-41.
- 김금주(2000).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 유형과 영아의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 -놀이·일상·책 읽어주기 상황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현, 전상진, 권해수(2007). 청소년문제세미나-미래예측과 청소년상담.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리진, 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2), 49-55.
- 김만지(2002).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발표 2: 청소년기 미혼 모의 진로태도성숙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입에 관한 연구. 2002 한

- 국아동복지학회 제 17 회 학술대회. 139-161.
- 김미례(2006). 기혼 여성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2007).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관한 단기 종단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2010). 아버지의 영아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64, 119-153.
- 김영숙(1998). 미혼모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 조애정, 노충래(2006).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보고서 2006-2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윤아, 이형하, 김혜선(2008). 미혼 양육모의 양육체험. 청소년복지연구, 10(1), 1-20.
- 김은실(2008).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21(1), 137-157.
- 김은지, 장혜경, 이미정, 최인희, 김혜영, 여유진(2011). 청소년한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자립지원방안 등 연구. 여성가족부.
- 김정 (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2000). 자녀 성장 단계별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비교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문혁준(2006).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4(1), 115-129.
- 김지연(2003). 취업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희(2009). 보육시설-가정연계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이 영아의 읽기 흥미

- 도와 의사소통능력 및 모-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선, 김은하(2006). 미혼 양육모의 양육 결정 체험: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373-393.
- 김혜영(2010). 양육미혼모의 자립기반 실태와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선보영(2010). 양육미혼모의 삶과 자립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60차 여성정책포럼**」.
- 김혜진(2005).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와 전업주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미애(2013).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우울과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44, 91-125.
- 노상학(1996). 미혼모와 혼외자를 위한 사회복지대책연구. **강남대학교논문집**, (27), 185-186.
- 박혜경(2013). **미혼양육모가 경험하는 심리현상**.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연, 전춘옥,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203-215.
-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유아정책연구소**.
- 변호순, 최정균(2016). 빈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사회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 53,1- 23.
- 사회사업사전(1996). 이론과 실천. 로버트 L. 바커, **중앙사회복지연구회** 옮김.
- 손수민(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 안지영(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미선(200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산후우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하영, 박혜원(2011). 양육관련변인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행동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9(3), 99-111.
- 양하영(2010).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미영(2007). 미국의 10대 임신과 예방을 위한 방법, 천정웅 편저, **아동청소년복지, 인간과 복지**.
- 유상미(2014). 영유아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일영, 이경자, 채선미(1998). 탁아방법에 따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및 직업만족도 비교연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2), 159-169.
- 윤은혜(2013). 자녀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하(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2010).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 관련 통계.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방안』 제 60차 여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삼식(1998).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선경(2013). 미혼양육모의 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아(2014).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희(2001). 보호시설 미혼모의 삶에 대한 참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시백, 서정애, 박인화, 이체진(2002).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부설 · 보건복지부**.
- 이영은(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순(1999).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제도와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진(2006).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 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1994). 도시 전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자형. (1998). 어머니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관한 고찰.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1(1), 61-92.
- 이정순(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수(2003). 미혼양육모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옥(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 행동의 비교. 영유아교육연구, 11, 41-81.
- 이지연(1998). 미혼모시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1996).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학업성취 및 행동문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희(2007). 시설 입소 미혼양육모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 사회적지지 실태.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순화(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표현어휘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근혜, 조성제(2015).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경상남도 OO시를 중심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5(3), 165-174.
- 정경순(2008). 미혼모의 성 인식. 기본간호학회지, 15(2), 229-239.

- 정마리아, 정문숙, 김신정(2000).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와 희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1), 18-33.
- 정문숙, 박경아(1997). 미취학 자녀를 가진 취업여성의 육아. 직장태아 요구 및 스트레스. **경북간호과학지**, 1(1), 19-34.
- 정문자, 이미리(2000). 취업 주부의 직업 및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5-126.
- 정미영(2016). **청소년미혼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안나(2006).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용순(2002). **미혼양육모에 대한 사회적응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승(1996).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숙남(1999). **미혼모의 출산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삼숙(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 편은숙(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남순, 노충래, 허소영, 조수민(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2. 국외연구

- Abidin, R.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rnett R.C., & Marshall N. L.(1992). Worker and mother roles, spillover effects and psychological distress. *Women Health, 18(2)*, 9-40.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Chyung, Y. J.(2008). Attachment experience in childhoo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among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3)*, 73-85.
- Cohn, J. F., Campbell, S. B., Matias, R., & Hopkins, J.(1990). Face-to-face interactions of postpartum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infant pairs at 2 month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15-26.
- Coleman, P., & Karraker, K.(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Connolly, A. C., Gobbini, MI, Haxby J.V.(2012) Three virtues of similaritybased multivariate pattern analysis: an example from the human object vision pathway. In: *Visual population codes: toward a common multivariate framework for cell recording and functional imaging* (Kriegeskorte N, Kreiman G, eds). Cambridge, MA: MIT.
-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 Dennison, C. and Coleman, J. (1998) Teenage motherhood: experiences and relationships. In: Clement, S. (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regnancy and Childbirth*. Edinburgh, Harcourt Brace.
- Featherstone, B. (2002). Research review: Parenting stress and externalizing child behavior by J. Morgan, D. Robison, & J. Aldridge.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7*, 219-225.

- Feldman, R., Eidelman, A.I., & Rotenberg, N.(2004). Parenting stress, infant emotion regulation,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triplets: A model for parent and child influences in a unique ecology. *Child Development, 75(6)*, 1774-1791.
- Kang, H. K., & Cho, B. H.(1999). Dual-career parenting stress: Effects of mother's values and support systems. *Korean J Pediatr, 20(2)*, 41-55.
- Kim, L. J., & Yoon, J. H.(2000). An ecological study on working mothers' parenting stress. *J Korean Acad Fam Med, 154*, 47-58.
- Kim, S. R., Hong, J. M., & Hong, H. K.(2010). The Relations among Mother's Behavior toward Rearing, Mother's Rearing-stress and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Children's Media Research, 9(2)*, 113-132.
- Kim, Y. A. (1990). *A study of the stress level percept by the married women at home management and it's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oh, S. H. (1994). A study on parenting stress perceived by mothers. *Korean J Youth, 18*, 21-37.
- Leahy-Warren, P., & McCarthy, G.(2011). Maternal parental self-efficacy in the postpartum period. *Midwifery, 27(6)*, 802-810.
- Lee, S. E.(2007). Young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nd Attention Ability by Parenting Attitude. *Children's Society, 28(2)*, 71-89.
- Miller, J. F., & Power, M. J.(1985). Inspiring hop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Jan*, 23-25.
- Nancy, E. H., & Kevin, R. B.(2001).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nvironment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ong african american and pean american mother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4)*, 954-966.
- NASW(1995). *Encyclopedia of Social Work*. Washington D.C: NASW Press.
- Patterson, G. R.(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6.

- Pearlin, L. I.,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4), 337-356.
- Pedersen, P. V., Christensen, A. I., Hesse, U., & Curtis, T.(2008). SUSY UDSAT: Sundhedsprofil for socialt udsatte i Danmark 2007. Syddansk Universitet. Statens Institut for Folkesundhed.
- Pianta, R. C., Nimetz, S. L., & Bennett, E. (1997). Mother-child relationships,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school outcomes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263-280.
- Rokach, A.(2005). Private lives in public places: Loneliness of the homel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2(1), 99-114.
- Sandler, I. G., Miller, P., Short, J., & Wolchik, S. A.(1989). Social support as a protective factor for children in stress. In D. Belle (Ed.), *Children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pp. 277-307). New York: Willey.
- Sawhill, Isabel V., & Thomas, A.(2001). *A Hand Up for the Bottom Third: Toward a New Agenda for Low Income Working Families*.(Brookings Working Paper). Washington, DC: Brookings.
- Shin, S. J., & Chung, M. J. (1998). Effects stress, social support and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19(1), 27-42.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s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 Marriage Fam*, 55, 91-106.
- Stewart, M., Reutter, L., Letourneau, N., & Makwarimba, E.(2009). A support intervention to promote health and coping among homeless youths. *CJNR (Canadi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41(2), 54-77.
- Stewart, M., Reutter, L., Letourneau, N., & Makwarimba, E.(2009). A support intervention to promote health and coping among homeless youths. *CJNR (Canadia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ID	
----	--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 전공 진민주입니다.

이 설문지는 【주부들이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문항을 잘 읽고, 귀하께서 느끼시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응답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응답과 함께 통계 처리됨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끝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가 끝난 뒤 2016년 8월 31일 폐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허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면 아래 성명, 연락처, 날짜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_____ 연락처 : _____ 날짜: 2016년 월 일

2016. 4.

지도 교수 : 박정환(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연구자 : 진민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이메일: jinmj12@hanmail.net

9. 귀 가정의 현재 월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배우자, 보조금, 임대수입 등 모든 수입 포함) 월평균 (원)
10. 귀하는 현재 자녀를 돌보는 일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1)남편 2) 친정부모 3)시부모 4)이웃아주머니 5)고용된 아기돌보미
 6)아기돌봄서비스 7)기타()
- 10-1. 아기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어디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1)읍·면동사무소 2)사회단체 3)건강가정지원센터 4)기타()
- 10-2. 아기돌봄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시간을 적어주세요.(월 몇시간)
- 10-3. 아기돌봄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보통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
- 10-4. 돌봄서비스에 대해 사회에 바라는 사항을 적어주세요.
 (_____)
11.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다면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1)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2)만족하지 못한다. 3)그저 그렇다. 4)만족한다.
 5)매우 만족한다. 6) 기타()
12. 자녀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1)장애가 있다. 2)질병이 있다. 3)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4)건강하다. 5)매우 건강하다.
13. 자녀의 기질은 어떻습니까?
 1)까다롭고 기르기 어려운 편이다. 2)보통이다.
 3)순하고 기르기 쉬운 편이다 4)기타()
14.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아기아빠께서는 평소에 자녀 돌보는 일에 어느 정도

참여한다고 느끼십니까?

- 1)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2)조금 참여한다. 3)보통수준이다.
4)많이 하는 편이다. 5)모든 일에 참여한다.

15. 아기아빠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전혀 받지 못한다. 2)그저 그렇다. 3)약간 받는다. 4)많이 받는다.

16. 귀하의 아기아빠와의 행복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하신 후 아기아빠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행복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 1)극도로 불행 2)매우 불행 3)약간 불행 4)행복 5)극도로 행복

17. 여러 상황을 다 고려하실 때 귀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십니까?

- 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불만족 3)보통 4)대체로 만족 5)매우 만족

18.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19.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양육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나의 방법(전략)을 적어주세요.(ex, 독서...대화...)

20.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양육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족, 사회,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적어주세요.

II. 양육 스트레스

다음은 귀하의 자녀 양육에 따른 어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같은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 때문에 모임에 가면서도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듯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를 낳은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가 않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집을 너무 어지럽힌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를 돌보느라 다른 집안일을 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시간에 맞춰 외출하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1.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이와 함께 외출했을 때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3. 아이를 매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출근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른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동안 다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5.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얼굴이나 손이 더러워서 화가 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기저귀나 옷이 젖은 채로 있어서 화가 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8. 아이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9. 할머니에게 애를 맡기게 되면 버릇이 나빠질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0.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부모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 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3.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4. 양육비용이나 탁아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5. 근무하는 동안 아이에게 갑작스런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가보지 못해 안타까웠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이를 거칠게 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7.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28.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9. 아이가 아픈 것을 직장에 다니는 엄마 탓으로 돌리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30. 아이가 태어난 이후 퇴근 후에 밀려 있는 집안일이 짜증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1. 아이의 잘못을 직장에 다니는 엄마 탓으로 돌리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 체로 그렇지 않다	보 통 이다	대 체로 그렇다	매 우 그렇다
32.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해 주신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f Parenting Stress on the Mother of Infants according to the Economic and the Marital Status.

MinJu Jin

Major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ung Hwan Pak

With an upswing in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women and sexual liberalization, parenting stress in mothers causes serious social problems, resulting in conflicts at home and inefficiencies in the workplace. This study started from the awareness of the possibility that recent child abuse issues were related to parenting stress of the mother. We assumed that the economic and the marital status affected parenting stress, and thus surveyed 32 items, categorized by 'parenting stress in general', 'burden in parenting role' and 'sense of guilt in non-parental care', from 180 full-time, employed and unmarried housewives (60 people each) living in Jeju.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atistics showed that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economic and the marital status, was not different in the category of 'parenting stress in general', 'burden in parenting' and 'sense of guilt in non-parental care'. Second, we found a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attitude toward child-care providers in accordance with economic and marital status. Married housewives appeared more positive in all relationships,

including parenting involvement of the father, emotional support and conjugal relationship. However, single mother responded negatively in all cases above. Marital status also affected job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nursery facilities, in that married mothers showed higher satisfaction in both cases than single mothers. In addition, self-satisfaction ratings for the current situation also appeared in the order of housewives, working housewives and single mothers. Third, the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mother, was affected statistically by the mother's religion in the case of 'sense of guilt in non-parental care', and the age of the first child in the category of "parenting stress in general ',' burden in parenting' and " sense of guilt in non-parental care'. Depending on satisfaction in family residence, "general parenting" and 'burden in parenting'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tegory. Monthly average income affects "sense of guilt in non-parental care' significantly.

This study explains reasons for promoting cultures in the workplace, such as the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and for the systematic support of single mothers. Parenting stress should be now recognized as a critical social problem. Collaborative and governance approach is required.